

수박·참외 등 작황 양호...여름 '과일 대란' 없다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과일 수급 동향 점검 여름수박 생산량, 지난해 수준될 듯...참외출하도 증가세

정부가 일찍부터 여름 과일 물가 관리에 나섰다.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잡히지 않는 과일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 과일 수급 동향 파악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산물 유통기관들과 함께 과일 수급 동향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사과·배 등 과일값이 크게 뛰었다는 점에서 수

박·참외 등 여름과일의 수급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올해 여름 수박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참외 출하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수박의 경우 이달 작황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름철 수박의 출하 면적과 작황을 고려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봤다.

이러 참외는 생육이 회복됐다는 점에서 출하량

증가세가 지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참외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80 t으로 전월(54 t) 대비 26 t(48.1%) 늘었다.

현재 수박과 참외 가격은 타 과일처럼 평년보다 비싼 상태다. 23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수박(상품·1개) 소매가는 이날 기준 2만 8697원으로 전년 동기(2만 3350원) 대비 22.9% 올랐고, 평년(2만 1505원)에 비해서는 33.4% 상승했다.

참외(상품·10개) 소매가는 이날 기준 3만 1376원으로 전년 동기(2만 3448원)와 평년(2만 2360원)에 견줘 각각 33.8%, 40.3% 올랐다.

이처럼 수박·참외 등 여름 과일도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박과 참외 모두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는 '과제 2024년 4월호'에 따르면 수박은 일조시간 감소 등 작황 부진으로 인해 이달 기준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일조시간 감소로 하부 생육이 부진하고 수경이 지연되면서, 주산지인 영남·호남·충청지역에서 모두 출하량이 감소한 결과다.

이달 기준 전체 수박 출하량의 68.1%를 차지하는 영남지역에서는 수박 출하량이 전년 대비 21.7% 감소했고, 충청(-9.7%), 호남(-4.2%) 순으로 나타났다.

KREI는 오는 5월에도 수박 출하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외 출하량의 경우 이달 기준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조시간 감소 및 우지람 현상 발생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에 따른 결과로, KREI는 남은 생육 기간동안 기상 여건이 회복됨에 따라 생육 역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식품부와 KREI는 점검결과 현재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산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재고량이 부족해진 사과 또는 배 등의 과일들보다 참외, 딸기, 수입 과일 등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사전에 작황을 관리해 제철 과일과 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년에 단 한번 '닥스 브랜드 대전'

광주신세계는 23일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닥스 브랜드 대전'을 오는 28일까지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닥스 잡화, 패션, 생활 브랜드를 본 매장 과 연계해 진행한다. '키즈' 제품은 최대 60%, 올해 신상품인 24SS 상품은 20~30% 할인 판매 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브랜드데이 10%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닥스 직원이 브랜드대전 이벤트홀에서 닥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창립 32주년' 한전KDN, 사랑 나눔 기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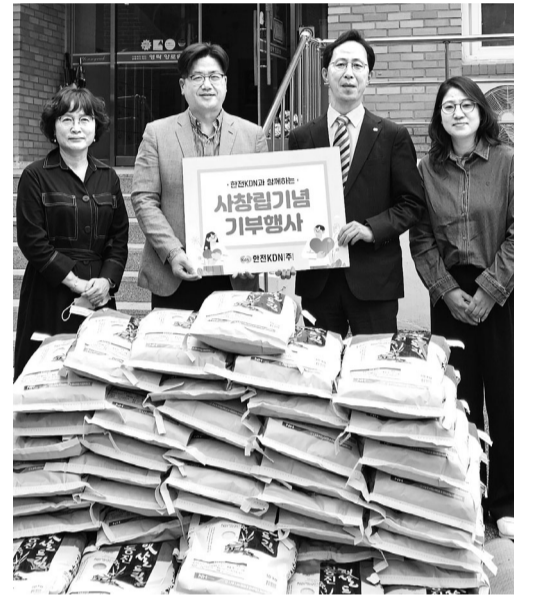
지역 농산물 구매 복지시설 전달

한전KDN은 지난 22일 창립기념 3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랑 나눔 기부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한전KDN 임직원들은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도 펼쳤다.

이에 따라 한전KDN 본사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진행한 성금 모금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광주·전남지역 복지시설 3곳에 기부했다.

또 한전KDN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북사업체는 창립을 기념해 지역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해 보육 아동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전국 사업소에서 각 여건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회사 창립 32주년을 맞아 지역의 이웃과 함께 축하하는 한편 지속적인 쌀 소비로 우리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



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전KDN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NATO 사이버훈련 '락드실즈 24' 4년 연속 참가

아일랜드와 연합 방어팀으로 참여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오는 26일까지 개최되는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인 'Locked Shields (락드실즈) 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락드실즈 24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해 매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리는 사이버공격방어훈련으로, 사이버 방어 협력체계 마련 및 사이버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전 세계 40개국 보안전문가 3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비롯해 국정원, 국가보안기

술연구소 등 11개 기관에서 8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팀을 구성해 4년 연속 참가하고 있다.

올해 훈련은 각각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방 방식으로 이뤄지며, 참여한 40개 국가의 18개 팀이 경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훈련에 아일랜드 대표팀과 연합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팀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보안 경진대회 입상자를 위주로 사내 정보보안 우수인력 8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분야 방어팀 일원으로 참여해, 가상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팀의 전산망 침투 시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전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우수한 사이버 침해대응 능력 및 노하우를 습득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점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전력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력거래소, 태양광 대표단체-KPX 간담회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등 의견 수렴

전력거래소는 지난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태양광 대표단체-KPX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태양광 업계를 대표하는 3개 주요기관인 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관계자와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및 운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로 봄-가을철에 낮은 전력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전사인 태양광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력계통 운영사인 전력거래소가 직접 청취하고, 재생에너지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한 현시 의견을 듣고, 제주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며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